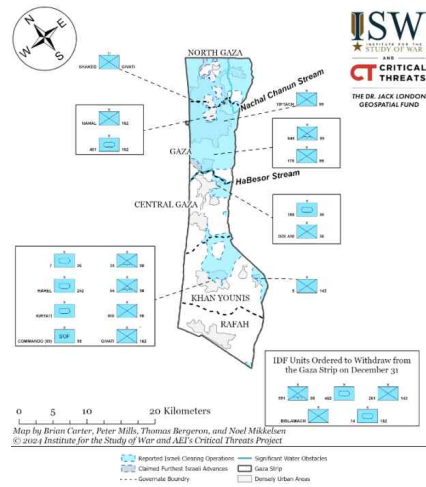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중동 질서 전망

김은비(국방대)

Q1. 전쟁 상황은?

- 23. 10. 7. '알아크사 홍수' 기습 → 3주 만에 지상작전 시작 → 11. 24 휴전(인질 113명 송환) → 1주일 만 전쟁 재개 → 1. 8 저강도 표적화 전투로 전환
- IDF, 가자 북부 대부분 장악, 칸 유니스 작전 중
- 24. 1. 8. 현재 양측 사망 2만 4천여 명 (하마스 8천여 명, IDF 176명 死)
- 가자지구 190만여 명(인구의 85%) 피란민화, 인구 100% 식량 위기



Q2. 작전을 평가하자면?

- 하마스
 - 기습 성공, 선전/심리전 초기 우위
 - 몰상식/비인간적 행위(납치, 인권유린 등)에 대한 비판
 - 이후 땅굴 사용, 공세적 행동에 무기력
 - 병원 등 시설 군사적 활용으로 공격 빌미 제공, 국제법 위반
- 이스라엘
 - 피습 이후 신속한 예비군 동원
 - 지상전에서 기대/우려 이상 성공적 작전 수행 (IDF 사망자 176명)
 - 땅굴 작전 간 군견, 로봇, 스펀지 폭탄 등 활용, 드론 활용 상시 감시/표적 획득
 - 작전 간 국제법 위반 논쟁 (필요성/비례성)
 - 작전 간 인도주의 문제 논쟁 (구호품 반입, 지하터널 水攻, 피란지역 공습 등)

Q3. 주변 국가들의 반응은?

- 미국
 - 초기 對이스라엘 전폭적 지지/지원 but 두 개의 전쟁수행, 對중동정책 실패 부담
 - 종전 위한 협상에 적극적
 - '저강도' 작전 전환 요구 (민간인 피해 급증, 美대선 준비)
 - 전후 가자지구 통치문제 이스라엘과 이견
- 저항의 축 (이란-시리아-헤즈볼라-후티 등)
 - 이스라엘 비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아닌 유대인-무슬림 전쟁으로 해석
 - 헤즈볼라, 전쟁 초기부터 국경지역 공격
 - 후티 반군, 홍해 차단/이스라엘 연관 선박 공격, 미군 헬기 공격(12. 31)
- 기타 아랍 국가
 - 하마스(팔레스타인과 구분) 초기작전 비난 → 이스라엘 책임론, 아랍지지 "목소리"
 - '2국가 해법' 지지 원칙론적 입장

Q4. 향후 전쟁 전개 전망은?

- 종전(협상조건 수락 여부) 주도권은 이스라엘+미국에 있음
 - 이스라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문제 부담감 (\$6억/w)
 - 네타냐후, 정치생명 연장 위한 전쟁 지속 의지
 - “하마스 제거·인질 송환·가자지구 내부의 이스라엘을 향한 위협 제거” 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멈춰선 안 된다” (1. 6.)
 - 미국, 대선 앞두고 장기화 부담
- 하마스, 반격 능력 없고 가자 주민들의 지지 추락
- 저항의 축(특히 헤즈볼라, 후티) 대응이 관건 but “전쟁을 원하는 이는 없다”

Q5. 레바논까지 전쟁이 확대될 것인가?

- 전쟁 초기부터 국경지역 공방, 3개월 간 헤즈볼라 대원 152명 등 207명 사망
- 최근 이스라엘의 표적 공격 심화
 - IDF, 1. 2. 베이루트에서 하마스 정치국 부국장/서열 3위 알아루리 드론 공격
 - ← 헤즈볼라, 6일 이. 공군기지에 미사일 62발 발사로 보복
 - 자마 이슬라미야(이슬람 무장단체), 로켓 공격 ← IDF 드론 보복
 - IDF, 1. 7. 레바논 내 헤즈볼라 관련 건물 전투기로 폭격
 - IDF, 1. 8. 레바논 남부 키르베트 셀름에서 헤즈볼라 특수부대 지휘관 알타일 미사일 공격

- 이스라엘, 표적 공격 외 전면전 가능성 낮음
 - 복수 전선 유지 어려움(레바논-시리아-후티-이란)
 - 미국의 반대
 - “헤즈볼라가 국경 침범시 이스라엘을 지원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지원하지 않겠다”
- 레바논/헤즈볼라, 체면상 간과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국경 넘어오기는 힘들
 - 전쟁시 승산 의문(레바논 경제문제), 이란의 승인?(연루 문제)
 - 이스라엘의 추가공격 자제, 레바논 체면유지/진정 위한 외교적 노력 필요

Q6. 이란은 개입할 것인가?

- 저항의 축의 핵심(정치적, 자금지원, 군사적 지원)이나, 최초 기습 연계 불명확
- 직접 개입 가능성은 낮음 (실익 無)
 - 경제난 매우 심각, 동결 해제 자금(\$60억) 수령/활용 시급
 - 내부 사회적 혼란 해결 우선 (22.9~ 히잡시위)
 -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습 빌미
 - 간접적 개입을 통한 실익 달성
- 그럼에도 위기관리 필요
 - 이스라엘의 對저항의 축 공격 증가세에 따른 대응 필요
 - IRGC 사령관(1. 6.), “오늘날 우리는 적과 전면전을 마주하고 있다”
 - 고농축 우라늄 생산¹⁾ 급증
 - 중국(석유공급, 사우디 관계정상화 중재), 러시아(자폭드론 수출) 비호
 - IS 준동(1.6. 자살폭탄테러) 등 내부 갈등 외부로 돌릴 가능성

Q7. 전후 이스라엘의 당면 문제는?

- 네타냐후 거취 문제
 - 네타냐후 책임론 부상과 ‘정부 VS. 군’ 갈등 = 이스라엘 내 좌우 갈등
 - 전후 네타냐후 직위 유지: 15% (이스라엘 내 여론조사)
 - 전시내각 해체 시 총선 재실시: 이스라엘의 극우화, 트럼프 당선 여부가 관건
- 미국과의 관계
 - 종전 협상 간 갈등, “저강도로 전환” 압박에 불만(국민 66% 미국 간섭에 불만)
 - 양측 지도자 교체시 미궁
- 주변 중동 국가와의 관계
 - 아브라함 협정 유지, 사우디와 수교에 큰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
 - 저항의 축 국가와 대립 강화 예상

1)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작년 11월 말부터 최대 60%까지 농축한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약 한 달 사이 9kg 고농축 우라늄을 증산했다고 발표. 60% 농축 우라늄은 추가 농축 과정을 거치면 몇 주 내에 무기용으로 사용 가능함.

Q8. 전후 가자지구는?

- 미국 등 국제사회: 2국가 해법 지지
 - 팔레스타인인들이 주도하는 통치 체제에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가 통합
- 이스라엘 이견(극우 Vs. 좌파)
 - 극우파: 가자주민 강제 이주 및 유대인 정착촌 재건²⁾
 - 팔. 주민으로 구성된 기구가 다국적 조직의 감독 하에 가자지구 책임(이.국방장관)³⁾
- 하마스 무력화, 가자지구 내부에서 기구 구성하여 재건/통치(아랍국 연합 지원/감독), PA와 절연, 이스라엘 국경 비무장지대 설치(?)

Q9. 전후 중동정세는?

- 산발적 테러/총돌 증가 예상
 - 팔레스타인 대의의 실종으로 서안/가자 지구 내 저항행동 증가 가능
 - 저항의 축 내부 결속 강화 예상: 역내 미군 기지, 해상교통로상 총돌 가능
 - 불안정 가운데 IS 재부상
- 미국의 개입 불가피, 영향력은 과거보다 크기 어려움
 - 이란 통제 난항(JCPOA 무력화)
 - 러-우 전쟁 러시아 승리시 역내 러시아/이란 영향력 확대 가능
- 이란發 갈등 증가 예상
 - 지도자 리스크: 美 대통령, 이. 총리, 이란 최고지도자
 - 핵 개발 진척 상황
 - 경제제재 지속여부, 히잡갈등, IS 활동 등 국내 안정 관건
- 사우디, 카타르 역내 영향력 상승
 - 하드파워+소프트파워 통한 영향력 발휘
 - 종전 과정 영향력 투사, 전후 재건사업 개입

2) 유대 정착민, 3개월 동안 팔. 사유지에 정착촌 전초기지 9곳, 12개 이상의 도로 건설 (Guardian, 24. 1. 5)

3) 갈란트 장관이 1. 5. 공개한 전후 청사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 통치에서 조정·감독의 역할을 하고 반입품 검사 ▲미국이 유럽이나 온건한 아랍국가와 함께 구성한 다국적 태스크포스가 가자지구의 행정과 경제적 재건 주도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공조해 가자지구 국경 민간 출입 감독 ▲하마스를 뺀 현재의 팔레스타인 행정 체계 유지